

‘희생’의 전근대적 함의와 근·현대인의 성경 이해

서신혜*, 이선희**

1. 서론

이 연구는 한글 성경에 쓰인 단어 중에서 오늘날 제대로 이해되거나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택하여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한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 아래 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 중에서 이 글에서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대상으로 삼았다. ‘희생’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 속죄 등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 및 성도들의 예배까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성경에 쓰인 번역어 문제는 특히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하는 「성경원문연구」의 필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문화적 차원을 고려하여, 혹은 신학적 차원을 고려하여 성경 번역의 원칙 문제를 제시하기도¹⁾ 하고, 개별 단어의 적합성 문제를 지적하며 적당한 번역어를 제시하기도²⁾ 하며, 언어 문법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살피는 일련의 연구들³⁾도 제시되어

* 한양대학교에서 국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후에 백석대학교에서 M.Div를 받음. 현재 한양대학교 부교수. sh2448@hanyang.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중앙대학교 조교수. yisunhui@cau.ac.kr.

- 1) 김동수, “두 가지 번역 원칙: 문화의 옷 벗겨내기과 저자의 신학 살려내기”,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69-177 등.
- 2) 장해경,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88-196; 노세영,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안 - 핫타트, 아삼, 트누파, 트루마”, 「성경원문연구」 36 (2015), 7-29 등.
- 3) 박창해, “성경 번역문의 문체와 문체”, 「성경원문연구」 13 (2003), 7-54; 박덕유, “한국어 성

있다. 이런 연구가 지속되기를 응원한다. 더불어 본 연구자가 추가할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경의 한글 번역을 평가할 때,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뿐 아니라 번역되던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와 언어 맥락에서 번역어를 선택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사와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 한글 성경을 보고 신앙을 키워왔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향후 학자와 목회자들이 나아갈 바를 결정할 때 적절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권리 포기’ 혹은 ‘억압이나 핍박을 받음’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근대에 이 단어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고, 사람들도 이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파악하지 않았다. 현재 사용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본래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의 뜻만 남은 것이다.

기존 연구로는, 앞서 언급한 일련의 번역 관련 연구들이 다수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글 성경 번역어의 의미에 관한 연구는 필자들의 기존 연구⁴⁾가 있고, ‘희생’이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전무용⁵⁾의 언급이 있다. 그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과정에서 기존 성경이 어려운 이유를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그중에서 성경의 문화적 배경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말하면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었다. “희생이라는 말은, 고대 중국에서 천지나 종묘에 제사 지낼 때 산 짐승 특히 소나 양이나 돼지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던 것을 나타내는 말로써,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뜻을 다 알 수 있는 말이다. 또 은나라의 탕왕이 자기 몸을 희생으로 바쳐 하늘에 기우제를 지낸 고사를 알아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말이다.”(116쪽)라고 설명하고,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에서 ‘희생제물’이라고 번역한 것과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독일성서공회 해설)의 ‘제사’ 항목 설명에 나오는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였다. 어린이 성경 제작을 위한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 ‘희생’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나 성경에 쓰인 ‘희생’이라는 한 단어의 전근대적인 의미를 처음 생각해 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어 의미 설명에 관한 연구 외에, 희생과 복음의 관련성을 설명한 연구

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2014), 83-109 등.

4) 이선희, 서신혜, “개항기 한글성경 번역어 ‘속(贖)’의 함의와 적합성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 (2019), 205-231; 서신혜, 이선희, “성경번역어 ‘속건제’의 전근대시기 함의 고찰”, 「구약논단」 75 (2020), 150-173.

5) 전무용, “어린이 성경의 문제 정립을 위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11 (2002), 115-133.

들은 여럿 있다. 예를 들어 한천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의 ‘희생제물’과 연결시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 유월절 어린양, 속죄제물 등과 연결하여 바울서신뿐 아니라 복음의 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희생의 신학적 의미를 정리하는 데 좋은 논문이다.⁶⁾ 임동호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희생제사 제도 전반을 정리했다. 피의 의미는 물론 희생제사의 방식도 정리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희생제사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특별한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희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푼 것은 아니나 희생제사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시한 점이 오히려 미덕인 논문이다.⁷⁾

조선시대 ‘희생’의 뜻과 사용 실태 등에 관한 역사학계의 연구는 여럿이나 이후 서술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며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희생’의 전근대적 의미와 집행 원칙

구약성경에서 동사 ‘자바흐(זָבַח)’, 명사 ‘제바흐(זֶבַח)’, 동사 ‘하가그(חָגַג)’, 명사 ‘하그(חַג)’ 등이 ‘희생’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다. 신약에서도 동사 ‘뒤오(θύω)’, 명사 ‘뒤시아(θυσία)’, 명사 ‘힐라스테리온(ἱλαστήριον)’, 명사 ‘스파기온(σφάγιον)’ 등도 ‘희생’으로 번역되어 있다.

희생은 한자로 ‘犧牲’이라 쓴다. 희(犧)는 뜻 부분인 소[牛]와 음 부분인 희(義)로 만들어진 형성 문자이다. 뜻 부분인 ‘소’는 특정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의 ‘털색’을 규정하는 단어로, 이는 ‘섞이지 않는 원색’을 뜻한다. 이것을 『시경(詩經)』에서는 정색(正色)이라 하고, 섞인 색은 간색(間色)이라 했다. 전통적으로 다섯 방위의 색인 오방색(五方色, 황청백주흑색)을 정색,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섞인 색을 간색이라 한 것인데, 정색은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간색은 천한 것으로 여겼다.⁸⁾ 예를 들어 붉은 계열이라 하더라도 주색과 자색이 있을 때 주색(朱色)은 정색이요, 자색(紫色)은 주색 바탕에 다른 것이 섞여 만들어진 색이다.⁹⁾

6) 한천설,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 바울 서신에 나타난 용례들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8 (2013), 349-374.

7) 임동호, “제사 제도에 있어서 희생 제물의 피흘림의 의미 및 그 역사적 배경 고찰”,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1993).

8) 『詩經集傳』, 「邶風-綠衣」: 黃, 中央土之正色, 間色, 賤而以爲衣, 正色, 貴而以爲裏.

9) 『論語』의 「陽貨」에도 색에 관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다. “나는 자주색이 붉은 주색(朱色)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며, 정(鄭)나라 음악(音樂)이 아악(雅樂)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생(牲)은 뜻 부분인 소[牛]와 음 부분인 생(生)으로 구성된다. 소를 포함한 가축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상서주소(尙書注疏)』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저절로 와서 취하는 것을 ‘양(攘)’이라 하고, 색깔이 순색인 것을 ‘희(犧)’라 하고, 몸체가 완전한 것을 ‘전(牲)’이라 하고, 소양돼지를 ‘생(牲)’이라 하고, 그릇에 담긴 것을 ‘용(用)’이라 한다.¹⁰⁾

위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희생이란 제사 때 제물로 바치는 순전한 ‘단색’의 ‘가축’이라는 뜻이다. 고대로부터 희생에 얼룩 가축을 쓰지 않은 예는 여러 문헌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공자가 중궁(仲弓)에 대해 평하면서, “얼룩소의 새끼가 색깔이 붉고 또 뿔이 바르게 났다면 사람들이 비록 제사에 희생으로 쓰지 않으려 하나 산천의 신(神)이 버려두겠느냐?”¹¹⁾라고 한 것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제사(祭祀)’라는 단어 중에 제(祭)는 인간이 고기를 손으로 들고 신께 바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字典)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제(祭)는 사(祀)이다. 시와 인간의 손과 고기로 시행한다[祭, 祀也, 從示從又從肉].”라고 하였다. 시(示)는 신격이고, 우(又)는 사람의 손, 육(肉)은 고깃덩어리이다. 즉 ‘제’는 ‘제사’와 같은 말인데, 제사에는 신과 사람과 희생이 필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제(祭)라는 글자이다. 모든 제사는 인간이 신께 희생을 올린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러므로 ‘제사’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희생제’로 받아들여졌고, 모든 제사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완결되었다.¹²⁾

제사에서 희생은 단순히 짐승을 ‘죽이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제사의 중요한 요소이자 원리이다. 희생은 그 제사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다. 희생은 그 제사를 완벽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이고, 필수 단계이다.

사직서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사직서에서 치르는 제사에 관한 것은 필요한 도구나 담당하는 직제, 순서 등까지 의궤에 모든 것이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¹³⁾ 2권에는, 친

말 잘하는 입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을 미워한다(子曰, 惡紫之奪朱也, 惡鄭聲之亂雅樂也, 惡利口之覆邦家者).”

10) 『尙書注疏』 제10권, 「尙書微子」 제17의 [傳]: “自來而取曰攘, 色純曰犧, 體完曰牲, 牛羊豕曰牲, 器實曰用”.

11) 『論語』, 「雍也」: 子謂仲弓, 曰“犁牛之子, 騂且角, 雖欲勿用, 山川其舍諸.”

12) 이에 대해서는 이육, “조선시대 유교 제사의 확산과 희생의 변용”, 『종교문화비평』 31 (2017), 47-90에 자세히 나와 있다.

13) 한국고전번역원 DB(www.itkc.or.kr)에서 『사직서의궤』 전체의 원문과 번역본을 찾아볼 수 있다.

제의(親祭儀)의 순서와 담당자와 그들의 행동이 자세히 적혀 있다. 순서만 보면, 시일(時日)에 대한 의절, 재계(齊戒)에 대한 의절, 서계(誓戒)에 친림(親臨)하는 의절, 진설(陳設)에 대한 의절,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는 의절, 거가(車駕)가 궁을 나가는 의절,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친히 살피는 의절, 폐백(幣帛)을 올리는 의절, 익힌 희생(犧牲)의 고기를 올리는 의절, 거가(車駕)가 궁(宮)으로 돌아오는 의절로 구성되어 있다. 순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희생은 단순히 제사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순서 중에 ‘왕이 직접 희생과 제기를 살피는 부분’에는, 제사 하루 전에 집례관이 희생을 위해 단을 설치하는 장소, 방향 등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다른 집례관이나 판서들과 왕세자의 위치도 규정되며, 제삿날 당일에는 시간까지 정확히 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희생을 끌고 나가며, 어떻게 희생을 살피며, 누가 어떻게 칼을 잡아 희생을 잡고 털과 피를 어떻게 하여 희생을 삶는다는 것까지 나온다. ‘익힌 희생 고기를 올리는 의절’에서도 왕이 폐백을 신위 앞에 놓았을 때 어떤 담당자가 주방에 가고, 어떻게 쇠고기를 건져 어디에 담고, 그것을 담은 그릇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신위 앞으로 올라오며, 그 때 음악은 무엇을 연주하는가까지 다 규정된다.

요컨대 희생이 단순히 제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준비하고 이끌고 잡고 처리하고 올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제의(祭儀)의 주요 부분이다.

한편 희생은 제사의 필수 요소이면서 그 제사의 격(格)을 드러내는 기준이었다. 제사를 올리는 대상과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祭主)가 누구냐에 따라 격이 달라졌다. 일반적으로, 왕이 직접 주관하는 제사, 국가의 안위와 근간에 관련된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을 사용했다. 희생으로 사용되는 것은 말, 소, 양, 닭, 개, 돼지 등 여섯 가축이나, 이 중에서 소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

어느 가축을 몇 마리 사용하는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명확히 규정되었다. 중요도와 규모에 따른 제사의 순서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 기고(祈告), 속제(俗祭), 주현(州縣)의 제사였다. 예를 들어 「국조오례의」에는 “사직(社稷)에 친제(親祭)할 적에는 소 한 마리, 양 네 마리, 돼지 네 마리를 쓰고, 대리 행사[攝事]할 적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네 마리를 쓰며, 기고(祈告)¹⁴⁾와 보사(報祀)¹⁵⁾에는 각기 돼지 한 마리를

14) 국가에서 행하는 제사인 기도(祈禱)와 고유(告由)를 말한다. 기도는 수재(水災) 등의 기후 문제, 전쟁이나 전염병 등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했고, 고유는 왕의 봉책(封冊)이나 관혼(冠婚) 등, 나라의 큰 일을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고할 때 했다.

15) 천지신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제사. 보새(報賽) 혹은 보새제(報賽祭)라고도 썼다.

쓰고, 주현(州縣)의 사직(社稷)에는 돼지 한 마리를 쓴다 … ”¹⁶⁾라고 하여, 격에 따른 희생의 종류와 규모를 상세히 규정했다.

제의의 필수 조건이면서 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인 희생은 다른 말로 ‘혈식(血食)’이라고도 썼는데 고대로부터 제사에는 희생을 사용하여 피와 생고기를 올렸기 때문이다. 희생에서 ‘혈(血)’, 즉 피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중기 문인 송인(宋寅, 1517-1584)이 이에 관한 문헌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

제사음식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제사에 혈육(血肉)을 쓰는 것은 대개 그 생기(生氣)에 의지하기 위함이다”라 했고, 또 ‘옛날에 거북이 껍질에 피를 칠할 때에는 희생물의 피를 사용했는데, 이는 거북이가 오래되면 영험하지 않아서 약간의 생기로 접속하기 위함이었다”라 했다. 『사기(史記)』 「귀협전(龜策傳)」에, “봄에 점칠 때에 계란 위에서 괘를 펼치는 것은 곧 생기를 거기에 접속하려는 것이다”라 했고, 또 ‘옛 사람들은 시동(尸童)¹⁷⁾을 세웠는데, 이는 장차 산 사람의 생기로 그와 접속하려 함이다”라 했고 … ”¹⁸⁾

한마디로 말해서 피를 통해서 생기를 불러일으켜 신과 접속하고자 해서 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제사에 관해 연구해온 이육은, 이와 관련하여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그 기운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¹⁹⁾

이와 같이 희생에서 피와 생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희생의 ‘조리법’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제례에서 인정(人情)에 가까운 것은 지극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교사(郊祀)엔 혈제(血祭)를 올리고, 대향(大饗)에는 성제(腥祭)를 올리고, 삼헌(三獻)엔 섬제(爛祭)를, 일헌(一獻)엔 숙(熟)을 올린다.²⁰⁾

16) 『世宗實錄』 128권, 「國朝五禮儀」 五禮 吉禮序例, 牲牢.

17)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신위(神位)를 놓는 대신 그 자리에 어린 아이를 앉혔는데 그를 시동이라 한다.

18) 『頤庵遺稿』 9권, 「禮說[以下出家禮輯覽]」: 具饌, 朱子語類云, 祭用血肉者, 蓋要藉其生氣耳, 又曰, 古者饗龜用牲血, 是見龜久不靈, 用些生氣者接續也, 史記龜策傳, 占春, 將雞子就上面開卦, 便是將生氣去接他, 又曰, 古人立尸也, 是將生人生氣去接他. 이 내용은 『상변통고(常變通攷)』에도 그대로 인용된다.

19) 이육, “조선시대 유교 제사의 확산과 희생의 변용”, 77.

20) 『禮記』, 「祭器」: 禮之近人情者 非其至者也 郊血 大饗腥 三獻爛 二獻熟.

위 인용문에서 보듯 ‘혈(血)’, ‘성(腥)’, ‘섬(爛)’, ‘숙(熟)’을 구분하고 있다. 즉 제사에 희생을 조리하는 방식은 피째 올리는 방식, 피를 빼고 날고기를 올리는 방식, 살짝 데치는 방식, 완전히 익히는 방식이 있었다. 인정(人情)과 지극(至極)으로 구분하여 말하는 것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제물을 있는 그대로 올릴수록 신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사람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요리할수록 ‘사소한’ 제사로 여겨졌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희생의 사용 범위와 그 변화 문제이다. 다음 인용문을 먼저 살펴보자.

무릇 제사는 신이 내려오게 하는[降神]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그 절차에서는 어육(魚肉) 등 날고기를 마련함으로써 신이 강림(降臨)하여 흠향하도록 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선군이 이르기를, “가축을 잡아서 희생으로 쓰기는 어려워도 다른 일반 제수를 마련하기는 쉬울 것이다. 비록 나물과 채소만 올린다 해도 충분히 행할 수가 있다 하겠지만, 다만 적(炙)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숭상하는 음식이니, 이것[炙]을 한 그릇의 희생으로 간주해서 넉넉하게 올리면 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러한 뜻을 알아두라.²¹⁾

인용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사에 희생이 있어야 하나 마련이 어려우니, ‘적’을 ‘희생’과 같은 것으로 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제사는 곧 희생 제사라는 의미였지만, 일반 백성의 제사에까지 희생을 쓰지는 않았다. 국가 제례와 민간 제사 중에서 동제(洞祭) 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수행된 제사에서만 희생을 사용했다. 하지만 성리학에 익숙한 양반 사대부들은 국가 제례에 익숙하여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국가 제례나 공공 목적의 민간 제례에서만 사용하던 희생을 후기로 갈수록 민간의 일반 제사에서도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겼다. 하지만 희생이라는 ‘순전한’ 가축을 마련하기는 물량 수급도 어렵고, 비용 감당도 어려웠다. 동시에 유교에서는 계급 구조 안에서 상하 관계에 따른 구별을 중시했기 때문에 국가 제사와 똑같이 민간에서 제사를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민간의 제사에서는 ‘희생’의 대체물로 날 것의 회(膾)나 구워진 적(炙)을 사용하였다.²²⁾ 그런 방식이 조선 후기를 거쳐 일제강점기,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21) 李植, 『澤堂集(別集)』 16권, 雜著 “家誡”: “凡祭祀, 降神節次最大, 其次則必有魚肉腥膾之物, 有降歆之理, 先君以爲牲牢難辦, 庶品易充, 雖蔬菜可爲, 唯炙樸我國生人所尚, 以此擬一牲豆, 致豐可也, 此意當知之.”

22) 이에 대해서는 이육, “조선시대 유교 제사의 확산과 희생의 변용”, 76-80 참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면, 희생은 얼룩이 아닌 순전한 ‘한 가지 색’의 가축이어야 한다. 또 희생은 ‘피’를 지닌 살아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며 바치는 것이다. ‘희생’은 단순히 ‘제물’로 대치할 수 없는, 제례의 완결 요소이다. 또한 성리학적 유교사회가 공고화되면서 국가 제례에 익숙한 양반 성리학자들이 자신들의 일반 제사에까지 희생을 쓰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어 조선 후기에는 일반 백성까지도 제례에 희생(희생이 아니면 회나 적이라도)을 올려야 한다는 인식을 널리 가지게 되었다. 이런 전근대적인 인식이 남아 있던 시기에 한글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 성경 속에 ‘희생’이라는 단어, 희생을 드리는 여러 제사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3. 전근대 시기 ‘희생’의 뜻과 성경 이해

성경에서 ‘피’는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나 관계 회복의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레위기 17:11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²³⁾는 그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구절로 유명하다. 하나님은 피를 통해 죄인이 속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한마디로 성경의 희생제사는 ‘속죄와 화목’의 의미였다. 희생의 피가 언약을 확증하는 기능(출 24:6-8)도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속죄와 화목’이다.

반면 전근대 시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희생은 신명께 바치는 음식이거나 제사 올리는 이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간절한 정성이었다. 피를 지닌 생명은 신명과 통하게 해주는 매개체 같은 것이라 여겼으니 성경과는 다르다.²⁴⁾ 하지만 전근대 시기 희생제사와 성경의 설명이 공통된 점도 많아, ‘희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의 각 부분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제(祭)는 신과 인간과 희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근대 시기

23) 앞으로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한다.

24) 고대 근동지방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임동호는, 메소포타미아인 등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나 영웅 서사시 등을 다양하게 인용하면서, 근동 지역의 제사에서 동물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들을 위해 바치는 양식’이었거나 ‘신의 축복 혹은 개인의 기원 성취’를 구하려 올리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때 희생의 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 그냥 피를 땅에 버렸다는 것도 이런 글들에게 드러난다고 했다. 임동호, “제사 제도에 있어서 희생 제물의 피흘림의 의미 및 그 역사적 배경 고찰”, 1-5.

에는 제사를 다른 말로 혈식(血食)이라 할 만큼 ‘희생’의 ‘피’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런 피가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매개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해는 성경의 원리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피를 통해 속죄하는 것이라는 사실만 제대로 정립할 경우, 그 피로 속죄받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간의 화목이 이루어져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는 전근대 시기 희생의 원리 이해와 교집합이 된다.

또 전근대 시기 ‘희생’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과 그분의 피로 ‘대속하심’을 이해하는 것과 교집합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단어가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속(贖)’은 등가의 가치로 값을 치르는 것을 뜻하는 조선 시대 법률 용어이다. 종인 한 사람이 양인이 되려면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보통은 주인이 돈으로 바꿔 주려고 하지 않아서 자기랑 성별과 연령이 비슷한 사람을 주인에게 대신 주는 ‘대구속신(代口贖身)’을 했다. 속을 하려면 ‘같은 조건’의 것과 바꾸어야 하니, 인간의 죄를 ‘속’하려면 같은 ‘인간’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²⁵⁾ 그런데 희생은 색이 섞이지 않은 단색의 ‘순전한’ 짐승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인간’ 중에 ‘순전한’ 인간만이 ‘희생’이 되어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희생’을 아는 사람에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대속하셨다는 성경의 원리는 잘 이해될 만한 것이다.

또 앞에서 어떤 희생을 쓰느냐에 제사의 격이 드러나고, 희생은 섞이지 않은 단색의 ‘순전한’ 짐승이어야 하며, ‘피’를 지닌 생명인 희생이 드러짐으로써 제사가 ‘완성’된다고 했다. 이를 알고 나면, ‘순전한’ 그리스도께서 ‘희생 양’이 되셔서 ‘피’를 드려 대속하셨다는 점을 깊이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18-19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하여 예수님을 ‘희생’으로, 우리가 희생이 되신 ‘그 피’로 속죄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이니 천지의 절대 한 분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격이 높은 ‘완전한’ 제사라는 이해와도 연결된다. 희생은 그렇게 예수님의 순결성, 고귀함, 완결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어가 된다.

요컨대 희생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접하게 되면, 희생은 ‘흠 없이 순전한’ 것만 될 수 있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

25) 속의 개념과 적용에 관해서는, 이선희, 서신혜, “개항기 한글성경 번역어 ‘속(贖)’의 함의와 적합성 고찰”에 자세하니 참고 바란다.

되고,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올려져 완전하고 완결된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한 상태에서 성경을 접하면, 여러 제사의 종류와 진행 사항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레위기 앞부분에 여러 제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예를 들어 4장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보면 누구의 죄를 속하는가에 따라 드리는 것이 달라진다. 제사장이면 수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면 수송아지, 족장이면 숫염소, 평민 한 사람이면 암염소를 드린다. 전근대 시기 제주가 왕인가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주관하는가에 따라 제사의 격이 달라지고, 또 격에 따라 희생 가축의 종류가 달라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레위기의 속죄제 규례는 마땅하고 잘 이해될 수밖에 없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희생 가축 중 어느 것을 쓰느냐를 보면서 제사의 격과 주최자를 구분하며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제사에 따라 피를 어디에 뿌린다거나 바른다거나 어디로 가져간다거나 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전근대 시기 제사도 마찬가지로여서 제사에 따라 피를 처리하는 방식까지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4. 번역어 ‘희생’을 통한 근대인의 성경 이해

성경이 번역되던 시기, 혹은 그 이후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던 일제강점기에도 ‘희생’이 사용되었으며, 사람들이 ‘희생’이 무엇인지 알았을까? 물론 그 때에도 희생은 시행되고 있었으며 국가 의례를 관장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희생을 알고 시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옹원(司饗院) 분원 공인(貢人) 지규식(1851-1911년 이후)이 쓴 『하재일기(荷齋日記)』²⁶⁾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희생을 올리며 제사 지내는 내용이 나온다. 이 일기는 중인 혹은 양민이었던 지규식²⁷⁾이 1891년

26) 이 일기는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전체가 국역되어 출간되어 있다. 『국역 하재일기』(전 8권), 김상환, 이종덕 역,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2009). 이 일기에 대해서는 송재용, “『하재일기』에 나타난 국가의례와 민간신앙 일고찰”, 『동양고전연구』 69 (2017), 349-371을 참고할 수 있다.

27) 지규식의 신분에 대해서는 중인이라는 주장과 평민이라는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반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박은숙, “사원 지규식의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을 둘러싼 시국 인식”, 『한국인물사연구』 17 (2012), 325-326; 김종철, “하재일기를 통해 본 19세기 말기 판소리 창자와 향유층의 동향”, 『판소리연구』 32 (2011), 63-64를 참고할 수 있다.

(고종 28) 1월 1일부터 1911년 윤6월 29일까지 총 20년에 걸쳐 거의 날마다 쓴 일기로, 그 안에 그가 사는 동안의 국내외 사건이나 풍속이나 의례 등 다양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1895년(고종 32) 7월 25일 일기에는, 마을에 홍수가 나고 이후에 전염병이 돌자 지규식과 마을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신인 황천후토에 제사를 지낸 내용이 나온다. 제사 지낼 때 읽은 축문까지 모두 일기에 기록해 두었다. 그 내용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희생’과 술을 갖추어 함께 제사 지낸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 축문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부정(不淨)하여 우리 집 문 앞에 단(壇)을 닦고 장막을 설치하고, 3경이 되어 희생과 술을 갖추어 하늘에 제사 지냈다. 축원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유세차 을미년 7월 기해삭 26일 갑자기 조선국 경기도와도 양근군 남종면 분원 제 3리에 거주하는 지규식은 거주민 30여 호를 거느리고 삼가 목욕재계하고 두 번 절하고 감히 황천(皇天)·후토(后土)에 고합니다 …” 제사를 마치고 동사(同社) 제인(諸人)이 음복하고 돌아갔다.²⁸⁾

인용문에 잘 드러나듯 1895년 경기도 양주에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 ‘희생’을 갖추어 제사를 올리고 있다. 국가 의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희생’을 사용하였으며, 양반 사대부나 조정 대신들뿐 아니라 민간의 일반 백성들도 ‘희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성경이 번역되던 시기에 ‘희생’은 민간인까지도 잘 알고 사용하는 단어였음이 분명하다.

심지어 1934년에 나온 신문 자료에까지도 ‘희생’을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매일신보(每日申報)』 1934년 3월 9일 5면에 강원도회 예산안 회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춘천(春川)] 강원도회 제4일은 6일 오전 10시 20분 개회. 전일에 … 속하야 예산안의 제1회의를 열었다.(중략) 김영제군(金永濟君) - 인제(麟蹄) 우두(牛頭)에 대(對)한 도축세(屠畜稅) 이원오십전(二圓五十錢)은 넘 우 빗쓰니 경감(輕減)할 수 업는가 … 김군(金君) - 다시 문묘석전제시(文廟釋奠祭時)에 공봉(供奉)할 우(牛)에 대(對)하야는 도축세를 면제함이 여하(如何)하냐고 하매. 의장(議長) - 문묘석전제시(文廟釋奠祭時)에 공봉(供奉)할 우(牛)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야 달내는데 지극동감(至

28) 『荷齋日記』 1895년 7월 25일: 里中不淨, 吾家門前, 修壇設帳, 至三更, 具牲酒祭天. 祝曰維歲次乙未七月己亥朔二十六日甲子, 朝鮮國京畿左道, 楊根南終面分院, 第三里居池圭植, 率居民三十餘戶, 謹齋浴再拜, 敢昭告于皇天后土 … 祭罷, 與同社諸人, 飲福而歸.

極同感)이다. 고려(考慮)하여 장래(將來)에는 면제할 작정(作定)이다.²⁹⁾
(한글병기 - 필자)

소 마리당 도축세를 받는데, 그 중에 문묘석전제 때에 바치는 소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의논이 나온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으나 석전제에 바치는 소라는 것은 ‘희생’과 같은 말이다. 이때까지도 제사에 희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희생’이라는 단어 사용 여부는 드러나지 않으나 여전히 실체가 있었으니 단어의 사용 및 의미 이해 가능성은 적지 않다.

희생의 개념과 집행 원칙 등이 성경과 어떻게 교집합을 이루는지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특별히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다. ‘희생’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의 ‘어린양’ 되심으로써 이루어진 대속으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느꼈을까 하는 것이다.

국가적 의례나 민간의 의례에서나 희생은 사용되었는데, 그 제례는 횡수가 많고 그 제례에 사용되는 희생을 준비하는 것은 늘 어려웠다. 마릿수도 많고, 적절한 것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다.

제향을 준비하는 부서에서 희생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제례등록(祭禮謄錄)』에 자주 나온다. 제향에 적합하도록 희생을 살찌우고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항상 어려웠다. 예를 들어 1663년(현종 4)에 제향에 쓰이는 검은 소[黑牛]가 갑자기 죽어 몇 마리 남지 않게 되자 담당 관청에서는 구료할 약물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현종도 제향이 제때 행해지지 못할 것을 크게 염려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⁰⁾ 검은 소를 주로 키웠던 제주도에 1683년 대규모 소 전염병이 발생하여 만 마리 이상의 소가 폐사되기도 했다. 제주 목장에서 기른 소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뱃길에서 죽는 수도 많았다. 제례에서 쓰는 것은 검은 소인데, 그 소는 생육이 저조하고 얼룩소만 많아지는 문제도 있었다. 기르는 장소를 넓혀 경기도나 충청도의 군현이나 민간에 맡아 희생으로 쓸 소를 기르게 하기도 했으나 관리 부실도 있고 고의로 폐사시켜 버리는 일까지 있어 처벌 규정까지 둘 정도였다.³¹⁾

29) 「每日申報」 1934년 3월 9일 5면, “求窮工事は 直營하라 - 林野稅는 不公平 - 文廟釋奠犧牲牛免稅要望 第四日の 江原道會”.

30) 『顯宗實錄』 6권, 현종 4년 6월 2일(무술): “祭事黑牛猝斃, 臣今日以不病牛, 纔出置閭家, 勿之相染, 今聞斃者連續, 只七首餘在云. 此必牛疫之毒者, 宜令該司, 覓送救療藥物.” 上曰, “前頭祭享, 殊甚可慮也.”

31) 이상 희생 관련 내용은 김지영, “典享司『祭禮謄錄』을 통해 본 조선 후기 국가제례와 일상”,

국가적인 차원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경우에도 어려웠다. ‘희생’이 아니라 ‘제사’라는 것으로 넓혀 생각해 보자. 조선이라는 유교 사회에서 자손, 특히 장손 및 며느리의 임무는 ‘봉제사 접빈객’으로 요약된다. 제사의 횟수도 많고 제수의 규모도 커서 가난한 집은 물론이요, 부자 가문까지 제사 때문에 가난해지고 괴로워졌다. 속담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 ‘가난한 집 신주 굶듯’이라는 속담까지 있는 것을 보면 제사가 얼마나 자주 왔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만 하다.

우리나라 긍정적 부자로 자주 언급되는 경주 최씨 집안 중에서 18세기 중엽 인물 최홍원가의 경제생활을 정리하여 그 부자가 궁핍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논문이 최근 보고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집안이 가난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봉제사 접빈객 문제를 들었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렇다. 종손이었던 최홍원은 4대 봉사, 망처(亡妻) 제사 등 11회의 기제사(忌祭祀)와 설, 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까지의 명절제사, 연 2회의 시제(時祭), 묘제(墓祭), 삭망제(朔望祭) 등을 합하여 연 40여 회의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제수(祭需)뿐 아니라 제사 드리러 참석한 가족들을 공궤하는 것 등까지 포함하여 매우 많은 비용이 소비되어 결국 빈곤해졌다는 것이다. 빈번한 제사는 이 집안뿐 아니라 양반가를 일상적으로 빈곤으로 이끄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³²⁾ 이런 사례가 다양하게 증명되어 있다.

흠 없는 희생을 준비하기 위해 겪는 온갖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준비에서 오는 번거로움, 시기상 너무 자주 있어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참 등을 겪고 있는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희생’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단번에 완성시킨 ‘속죄’, 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대목이 많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10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였다. 완전한 희생이 되신 예수님 덕에 이제 후로는 다시 제사하지 않고 자유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선포되었다.

앞 장에서 말한 대로, 제사에 익숙했던 전근대 사람들은 성경 레위기 등에 나오는 여러 제사에 대해 이해할 여지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이 장에서 설명한 대로, 벼슬아치나 일반 백성이나 제수 준비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구약 제사의 여러 단계와 그 과정의 복잡함이나 희생 준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초기 믿음의 선조들은 예

「사학연구」 116 (2014), 261-264 참조.

32) 정진영, “부자들의 빈곤2 - 18세기 중반 영남 한 향촌 양반지주가의 경제생활”, 「대구사학」 129 (2017), 28-29.

수님이 몸소 완전한 희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였을 것이다.

5. ‘희생’의 개념으로 본 성경 번역어 선택 문제

한글 성경이 『구역』에서 『개역』, 『개역한글』을 거쳐 『개역개정』까지 오는 동안 여러 히브리어, 그리스어 단어가 성경 문맥에 따라 ‘희생’ 등의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 일일이 각 구절을 살필 수는 없지만 현재 사용하는 『개역개정』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안 몇 개만 검토하려 한다.

『개역개정』 기준으로 ‘희생’이라는 단어는 총 37건 나온다. 『개역한글』의 경우 105건이었으니, 『개역한글』에서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제사’ 혹은 ‘제물’로 바꾼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희생’ 단어 사용 건수가 대폭 줄었다. 『개역개정』에서 이사야, 고린도전서 등에 나오는 ‘희생’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두었지만 특히 모세오경 부분에서는 다른 단어로 바꾸었다. 물론 『개역개정』을 펴낼 때 수많은 학자와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여 적합한 번역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며, 감사한다. 다만 이 한 단어의 본래 함의를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환기하려고 한다.

『개역한글』 출애굽기의 경우 총 19번의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출애굽기 18:12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이라고 한 부분만 빼고 18군데 모두를 ‘제사’ 혹은 ‘제물’로 바꾸어 놓았다. 『개역한글』 출애굽기 3:18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하였던 것을 『개역개정』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하였다. ‘희생’을 ‘제사’로 바꾼 것이다. 레위기도 마찬가지로여서 『개역한글』 기준 ‘희생’ 단어 사용 총 50번 중에 레위기 23:37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라고 한 것만 빼고 나머지 49번 모두에서 ‘희생’을 ‘제사’나 ‘제물’로 바꾸었다. ‘희생’이라고 써 놓아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까지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출 10:26)과 호응이 되는데, 이것을 ‘제사’나 ‘제물’로 바꾸면 이런 맥락이 어색해진다. 이런 예들을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희생을 ‘제사’, ‘제물’ 등 다른 단어로 바꿀 경우 의미가 달라지거나 축소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0:25에 대해 『개역한글』은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라고 했으나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라고 하였다. 그렇게 써 놓고 나면 애굽왕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 되니 어처구니없는 표현이 된다.

신명기 12:27의 경우 『개역한글』에서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라고 되어 있던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라고 바꾸어놓았다. “다른 제 희생”이라는 대목에서 ‘제’를 없애고 ‘희생’을 ‘제물’로 바꾸어 놓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다. ‘제(諸)’는 ‘모든’이라는 의미이니 ‘희생을 드리는 모든 경우에’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개역개정』처럼 할 경우에는 ‘번제를 드릴 때 피’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또 ‘제물’은 살아 있는 동물뿐 아니라 다른 곡물 등으로도 드릴 수 있으므로 ‘제 희생’과 ‘피’를 연결시킨 대목을 ‘제물’과 ‘피’로 한정시킨 것은 의미를 바꾸거나 축소시킨 것이다.

둘째, 호응 관계 고려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리말의 특징 중 하나가 특정 단어는 특정 동사와 연결되는 호응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자’라는 단어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서술어로 ‘쓰다’나 ‘집다’ 등이 선택되어 있는 것이요, ‘양말’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면 이미 ‘신다’ 등의 서술어도 선택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희생’이라는 명사를 다른 단어로 고칠 경우 그 ‘희생’이라는 단어와 호응 관계에 맞추어져 쓰인 서술어까지 고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색하거나 잘못된 문장이 된다.

예컨대 레위기 1:6은 『개역한글』에서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 것이요”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 것이요”라고 했다. ‘번제 희생’과 ‘가죽’을 벗기는 것은 잘 연결되지만, ‘번제물’로 고치니 ‘번제물’과 ‘가죽’을 벗긴다는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해졌다.

레위기 7:2도 ‘희생’ 단어가 삭제된 경우이다. 『개역한글』에서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라고 했던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라고 했다. ‘희생’을 ‘잡다’라는 것은 목적어-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만 ‘번제물’

을 ‘잡다’라고 쓰고 나니 ‘잡다’가 ‘죽이다’가 아니라 ‘가져가다’, ‘움켜쥐다’와 같은 맥락과 연결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번제물’ 잡는 곳에서 ‘번제물’을 잡는다고 하는 어색함이 더불어 생기기도 했다.

시편 118:27을 『개역한글』에서는 “여호와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비취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뿔지어다”라 하였으나 『개역개정』으로 바꾸면서 “여호와와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뿔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뿔지어다”라고 하였다. 희생으로 사용하는 소나 양 같은 가축은 목에 끈을 묶어 데려왔을 테니 그 끈을 제단 뿔에 ‘매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희생’이라는 단어를 ‘절기 제물’로 바꾸면 뿔에 맨다는 표현은 어색해 진다.

셋째, ‘희생’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면서도 조사를 바꾸거나 없애면 의미가 달라진다. 그렇게 되어 바뀌는 의미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여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희생’은 앞서 말한 대로 ‘제사에 바쳐질 동물’을 말한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 의미가 점점 잊혀져 단순히 ‘권리의 포기’나 ‘핍박이나 억압을 당함’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희생’은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은데도, 전자와 같은 정도로 파악하여 쓸 경우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개역개정』 고린도전서 5:7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썼다. 희생은 명사이다. 그 의미를 살려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해야 명확한 의미가 된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대상’이 되셨다는 의미이니 ‘명사’로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살려야 옳다. ‘이’라는 보격조사를 빼면 의미가 달라진다. 『개역한글』에서는 해당 부분을 “희생이 되셨느니라”라고 썼다. 『개역개정』으로 바꾸면서 희생의 의미를 깊이 파악하지 않아 바꾸지 말아야 할 부분을 바꾸어버렸던 것이다. 개념어로 쓰인 명사는 때로 다른 단어로 고치지 않고 조사만 바꾸거나 없애더라도 의미가 달라진다.

그 외에도 같은 성경 같은 장에서 같은 구문을 한쪽에서는 ‘제물’로 바꾸고, 한쪽에서는 그대로 ‘희생’으로 남겨둔 경우(신 12장의 경우)도 있다.

맥락이나 문법적인 의미 때문에만 ‘희생’을 ‘제물’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잘 드러나는 것처럼, 희생이라는 단어는 제물이라는 단어와 동일어가 아니다. 제물로는 소, 양 같은 짐승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곡물, 고운 가루, 유향, 떡 같은 물건도 사용되므로 제물이 희생보다 훨씬 넓은 범위이다. 희생은 반드시 ‘피’를 지닌 ‘생명’이어야 한다. 전근대인들은 그 생기가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가 된

다고 하였고, 성경에서는 그 피가 생명이요 그 피로 죄를 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희생’이라는 단어를 ‘제물’로 바꾸면 ‘피’와 ‘생명’이라는 의미를 잃게 된다. 또, 제사에서 희생은 단순히 짐승을 죽이는 행위에 불과한 것도 아니요, 단순히 제사에 쓰는 도구가 아니다. 희생은 그 제사를 완벽하게 하는 필수 요소요 필수 단계이다.

요컨대 ‘희생’을 ‘제물’ 등으로 바꾸면 표현상, 문법상의 어색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의미상 중요한 것을 누락시킬 수도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희생’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살피고 전근대 사회에서 희생이 어떻게 쓰였으며,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었는지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폈다. 특히 희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잘 이해될 수 있는지 말하였다. 그리고 신분제 유교 사회였던 조선 시대 끝자락에 전파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희생’이라는 맥락으로 설명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요약은 생략한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역사성을 지닌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언어 활용이 포함되었고, 그 점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정 단어가 현대에 잘 쓰이지 않거나, 변형되어 쓰일 때 그 단어를 없앨 수도 있고, 현대에 잘 쓰이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단어의 의미가 정말 사라졌는지, 그 단어를 대신할 단어가 적합한지는 잘 살펴야 한다. 때로는 단어를 없애거나 바꾸는 것보다 잊혀져가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희생이야말로 그런 단어이다.

희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나면 이 단어가 쓰인 대목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고 강렬하게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라기 2:3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고 하였다. ‘희생’이 제사를 위해 죽임을 당할 ‘소’, ‘염소’ 등의 동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소나 염소의 똥을 네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욕된 의미인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우리 성경에 한자가 많다고 이를 쉬운 한글로 고쳐야 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동감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저 한글로 풀 수 있는 한자어도 있지만, 중요한 ‘개념어’이고 ‘같은 의미’의 대역어가 없어서 바꾸면 안 되는 한자어도 있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 사람들이 알기 쉽게 바꾼다고 하여 레위기 13:19나 이사야 38:21에 나오는 ‘종처(腫處)’를 ‘부스럼이 난 자리’ 등으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희생’ 같은 단어는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개념과 원리들이 담겨 있는 단어이다. 그리고 그런 단어를 잘 이해하는 일은 성경의 이해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단어들은 없애거나 바꾸지 않고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주제어>(Keywords)

희생, 혈식, 제사, 제물, 대속.

sacrifice, flesh feasting, ancestral ritual, ritual offering, redemption.

(투고 일자: 2020년 1월 15일, 심사 일자: 2020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4월 21일)

<참고문헌>(References)

「國朝五禮儀」

『論語』

「每日申報」

『社稷署儀軌』

『尙書註疏』

『詩經集傳』

『禮記』

『頤庵遺稿』

『朝鮮王朝實錄』

『澤堂集』

『國譯 荷齋日記』(전 8권), 김상환, 이종덕 역,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2009.

김동수, “두 가지 번역 원칙: 문화의 옷 벗겨내기과 저자의 신학 살려내기”,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69-177.

김종철, “하재일기를 통해 본 19세기 말기 판소리 창자와 향유층의 동향”, 『판소리연구』 32 (2011), 435-466.

김지영, “典享司『祭禮膳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국가제례와 일상”, 『사학연구』 116 (2014), 243-286.

노세영,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 핫타트, 아삼, 트누파, 트루마”, 『성경원문연구』 36 (2015), 7-29.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 『성경원문연구』 34 (2014), 83-109.

박은숙, “社員 池圭植의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을 둘러싼 시국 인식”, 『한국인물사연구』 17 (2012), 323-357.

박창해, “성경 번역문의 문체와 문채”, 『성경원문연구』 13 (2003), 7-54.

송재용, “『하재일기』에 나타난 국가의례와 민간신앙 일고찰”, 『동양고전연구』 69 (2017), 349-371.

서신혜, 이선희, “성경번역어 ‘속건제’의 전근대시기 함의 고찰”, 『구약논단』 75 (2020), 150-173.

이선희, 서신혜, “개항기 한글성경 번역어 ‘속(贖)’의 함의와 적합성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 (2019), 205-231.

이욱, “조선시대 유교 제사의 확산과 희생의 변용”, 『종교문화비평』 31 (2017), 47-90.

임동호, “제사 제도에 있어서 희생 제물의 피흘림의 의미 및 그 역사적 배경 고찰”,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1993.

- 장해경,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88-196.
- 전무용, “어린이 성경의 문체 정립을 위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11 (2002),
115-133.
- 정진영, “부자들의 빈곤2 - 18세기 중반 영남 한 향촌 양반지주가의 경제생활”,
「대구사학」 129 (2017), 1-40.
- 한천설,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 바울 서신에 나타난 용례
들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8 (2013), 349-374.
- 한형주, “조선시대 국가제사에서의 ‘犧牲’ 사용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52
(2017), 47-75.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e Word ‘Sacrifice’ in the Pre-Modern Era and the Modern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Bible

Shin-Hye Seo, Sun-Hui Yi
(Hanyang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ains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word ‘sacrifice’ used in the Bible in the pre-modern era, and explains how it is linked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Bible. The Korean word for sacrifice is composed of two letters — one meaning ‘untainted pure color’ and the other meaning ‘livestock’. The sacrifice was an essential step to complete the ancestral ritual. There was so much emphasis on the blood and life of the sacrifice that the alternative word for the ancestral ritual was ‘flesh feasting’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 sacrifice served to connect human beings and god. The class of the ritual was determined by the type and the scale of the sacrifi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Confucianism was firmly established in the society, the general public thought that it was necessary to offer at least ‘grilled meats’ in place of sacrifice in an ancestral ritual.

The Korean Bible was translated at a time when there remained a general acceptance of such perception of sacrifice, and this word ‘sacrifice’ was used to explain the gospel. The word was useful in explaining how Jesus became the sacrifice and reconciled the connection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who were sinners. Such concept of sacrifice also helps understand how Jesus as the sacrifice is pure, complete, and righteous. In the current version of the translated Bible in 1998, however, the words that were translated into “sacrifice” in the older versions have often been revised to “offering” or “ancestral ritual”. This not only makes the context awkward but also limit the meaning of ‘sacrifice’ mentioned above.

It calls for special attention when trying to replace Chinese-based words (Chinese loanwords) that are not in frequent use with ones in wider use. When a word happens to convey the core ‘concept’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Bible with no alternative, the word should not be changed and its meaning has to be appreciated. The word ‘sacrifice’ is a very good example of such.